

4~5 >> 후마니타스 칼리지 출범 4년, 변화가 필요하다



12 >> 인터뷰 - 손지훈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수상자



학사다이어리 -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11월 20일 - 12월 8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l.go.kr / 문의: 1599-2000)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 (100점만점 기준)
- ※ 올해부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필요, 학부모 공인인증서 준비필수



18대 노조 위원장 송혜경 후보 당선

노동조합 임원 선거결과 개표가 진행됐던 지난 20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 12년 만에 진행된 경선이었던 만큼 많은 유권자 432명 중 423명이 투표해 97.9%의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는 기호 1번 송혜경 위원장 후보와 김용은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총 423표 중 243표(57.6%)를 득표해 기호 장백기 위원장 후보와 김종민 수석부위원장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7년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여성 노동조합 위원장이 탄생한 순간이기도 했다.

오락가락 중선관위 선거 불신 키워

논란 속 국제캠 총학 선거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국제】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연속적인 이의제기와 선거 시행 세칙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Klass Up' 선거운동본부(선본)와 '친 KHU' 선본, 양 선본 모두 총학생회 후보 등록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작은 지난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Klass Up' 선본은 약력서류에 입후보자 이름을 오기한 채로 후보자 서류를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오기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보추천서를 발급했다. 결국 'Klass Up' 선본에서는 후보추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중선관위의 과실로 약 1,200장의 후보추천서를 전량 폐기해야 했다. 이후 'Klass Up' 선본은 사과를 요청했고 이에 중선관위는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우리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communit.khu.ac.kr)에 게재하기도 했다. 잡음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중선관위는 지난 17일 0시 경에 '친 KHU' 선본의 총학생회 후보를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친 KHU' 선본이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추천자수 기준 인 1/10을 넘었지만 5개 단과대학에서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열린 긴급회의 결과, "선거 시행세칙 5장 23조(등록절차)에 의

거하여 등록 마감시간 이후 출입할 수 없으므로 미비된 서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선관위원들의 중론이 모아져 '친 KHU' 선본의 총학생회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친 KHU' 선본 측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20시 30분에 시작된 '5차 중선관위'에서 후보자격 박탈에 대해 '중선관위 인원부족 문제로 후보등록 과정이 늦어졌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제기 내용의 핵심은 서류제출 시기가 마감시간 전 이었던 만큼 결론을 빠르게 제시했을 경우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중선관위는 논의 결과 이의제기의 일부분을 받아들여 후보등록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결국 지난 18일 열린 중선관위 긴

급회의에서 '친 KHU' 선본의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과 'Klass Up' 선본의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했다. 'Klass Up' 선본은 '친 KHU' 선본의 과실로 등록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후보를 등록시켜주는 것은 편파판정'이며 '5개 단과대학 1/10 이상의 추천수를 정해진 시간내에 가져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중선관위 측은 두 선본의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선관위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후보등록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6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경희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진행한 체대 학생회 유문기 회장



함께 걸으며 한마음 된 경희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올해 개교 6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여럿 개최됐다. 그 가운데 지난 8일 체육대학(체대) 주최로 진행했던 '제1회 경희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는 새로웠다. 국제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까지 총 55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었기 때문이다. 행사를 준비한 체대 학생회 유문기(스포츠의학 2008)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이번 행사는 전체 거리를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합류지점에서 기다리던 인원이 본 행렬에 합류했고, 긴 코스를 걸을수록 적은 참가비를 받는 형식이었다. 마련된 1,400만 원 가량의 금액은 전액 발전기금으로 적립됐다. 유 회장이 이 행사를 기획한 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다. 그는 체대 전이기 확장과 함께 '애교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유 회장은 "학교에 기여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체대만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축제와 더불어 당초 5월 18일 개교 기념일로 예정돼 있던 이 행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이후 가을대동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걷기대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55km라는 거리가 부담일 수 있다. 그가 철저히 준비한 부분은 구성원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총 7번에 걸쳐 답사를 진행했다. 그는 "2번은 자동차로, 3번은 자전거로, 2번은 직접 걸어서 답사했다"며 "무엇보다 참가자의 안전을 중시해야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답사를 통해 그

는 긴 행렬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교차로와 진입로 등을 감안해 코스를 여러 차례 수정했다. 이 밖에도 유 회장은 AT(athletic trainer:선수트레이너)과정에 있는 스포츠의학과 학생들을 배치해 구성원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도록 했다. 새벽 4시에 국제캠퍼스 정문을 출발한 대열은 합류지점을 지날 때마다 대기하고 있던 인원이 합류하며 규모를 키워갔다. 유 회장은 "마치 물방울이 하나 둘씩 모여 큰 강을 이룬 것 같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코스에서 언덕을 올라 가던 중 뒤를 돌아봤다. 선두에서 긴 경희인의 행진을 바라볼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행렬은 오후 6시 무렵 서울캠퍼스 정문을 통과했다. 14시간 만이었다. 그는 "마지막 코스에서 언덕을 올라 가던 중 뒤를 돌아봤다. 선두에서 긴 경희인의 행진을 바라볼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며 "참가자 전원이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쉴 때 느꼈던 감정은 표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 행사가 더 큰 규모로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그는 "단합된 구성원의 모습을 보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며 "더 많은 동문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2회', '제3회'의 대회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8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경희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는 경희 구성원 전체의 단합과 소통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모든 경희인이 단합할 수 있는 연례 행사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이기심이 아니라 동감이야! 《도덕 감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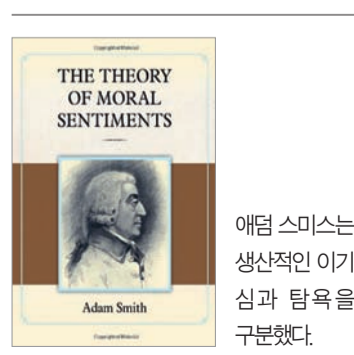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윤원근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동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바보가 어떻게 경제학의 아버지일까? 경제학은 바보 학문인가? 그러나 통속적 이해가 잘

못되었다면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바보다. 누가 바보일까? 스킨스키(Skidelsky) 부자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에서 통속적인 이해를 따라 스미스가 이기심이 중력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탐욕을 이기심으로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 스미스는 이기심이 아니라 동감을 중력으로 보았다. 스미스는 이기심을 긍정하였지만 동감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생산적인 이기심을 탐욕이라 불리는 과도한 이기심과 구분하였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

간사에 작용하는 두 차원의 자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사물의 자연적 진행이다. 이것은 사물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을 잘 알고 이용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은 생산적인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부지런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고, 반대로 게으르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7면으로 이어짐



- 지면안내
- 6면 노동조합 송혜경 위원장 당선 서울캠 법적 정당성 논란
 - 7면 서울캠 총학생회 '우리의 경희' 후보 인터뷰 6개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자 불출마
 - 8면 국제캠 총학생회 기호 1번 'Klass Up' 후보 인터뷰 국제캠 총학생회 기호 79번 '친 KHU' 후보 인터뷰
 - 9면 서울캠 총학생회 '(HER!)들' 후보 인터뷰 국제캠 총학생회 '친 KHU' 후보 인터뷰
 - 10면 선거 특별기고 - 총학생회의 존재 이유

알바노동자 필수상식 ④

아라바이트도 노동이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갖고있는 권리를
실제사례와 함께 알바노동자 경희대 분회
김재섭 분회장에게 들어본다.
>>11면

